

AUTHOR 손두환

TITLE 종교개혁전야의 역사적 배경

IN 목사 계속 강의집

8권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90): 26-41.

종교개혁전야의 역사적배경 (Indulgences : Its Causes and Consequences)

손 두 환 교수

I. 머릿말

16세기의 로마 교황청은 재정적인 곤란이 심각하였다. 15세기부터 대두되어온 국가주의로 큰 딜레마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타개책으로 속죄표 판매를 강행하게 되었고 교황청 재정조달을 위한 수단 방법이 비상하게 작용되는 단면이 노출되고 있다. 이같은 수단방법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로마교회 자체내의 개혁을 촉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어느 단체나 “재정”에 관한 문제는 인간 역사의 어느 시기에서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로 도사리고 있는 점이지만 종교개혁 전야에 있어서 그 쫓점이 되었던 문제들을 주의깊게 연구해 보는 것은 종교개혁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인 개혁들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II. Indulgences의 역사적인 고찰

Indulgences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훌륭한 성자들이 저축한 공덕을 공양받음으로 신앙이 부족한 성도들이 죄를 용서받도록 하여 주는 혜택을 주어 금생과 내생에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해 준다는 로마교회의 교리로써 이것은 본래 회개를 전제로 만든 제도이었던 것이다. 초대교회 당

시는 공중 앞에서 행해지던 회개 의식이 변하여 신부 앞에서 은밀히 고백하는 개인적인 성사로 대치되어 갔다. 이러한 개인적인 고백은 초기에는 수도원에서 행해졌고 차츰 일반 성직자들과 교회 평신도들에게 널리 퍼져나갔다. 회개의 순서는 통회-고백-배상-면제의 순서이었는데 차츰 간소화되었다. 형벌을 제거하는 배상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 결과 배상은 여러가지 선행 즉 교환, 양도, 할인, 대리, 탕감, 대속등으로 교회의 속죄표를 돈주고 받는 절차로 대신하게 되었다. 회개의 실행으로 금품을 바치는 일이 성행되다가 11세기부터는 남부 프랑스에서 속죄표가 대두되었다. 이것은 드디어 1040년 Benedictus IX세에 의해 정식으로 허가되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면죄하는 권력은 전반적으로 로마 교황권에만 국한시키는 제도로만 남아있는 셈이다. 속죄표의 시작한 동기는 순수하였으나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유감스럽게도 탈선한 열차처럼 돈을 염출하는데 악용하여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였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와같이 11세기부터 논의되고 조용히 판매해오던 Indulgences제도를 15세기 초에는 더욱 크게 장려하고 확장하여 Indulgences의 판매를 강행하였다. 이것은 왜냐하면 베드로 대성당의 막대한 공사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당시 로마교회의 재정 형편은 매우 곤란했었다. 그 이유는 영국, 불란서, 스페인등 구라파 여러나라의 교회영지로부터 받아 들이던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이었다.

속죄표의 원리는 공적설('the treasury of the Merit')의 원리에서 발전되었다고 본다. 처음에는 제한된 종류의 속죄표를 만들어 교회나 수도원에 돈이나 토지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그 선행의 대가로 면죄의 표를 주는 데서 시작된 듯하다. 어떤 죄에 대한 현세적인 형벌들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사후에 연옥(purgatory)에서 처벌이 요구될 터이므로 로마교회의 면죄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되었으며 당시 사람들은 로마교회의 주장대로 믿고 면죄표를 돈주고 사게 되었다.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연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은 연옥에서 죄를 깨끗이 정죄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11세기에 들어와 대사(plenary indulgences)하는 제도가 로마교회의 포고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광범위하게 적용시키지 않았다. 이 대사제도를 정치적으로 크게 적용한 것은 제1차 십자군 원정때 Pope Urban II세이었다. 그 후부터는 로마교회가 인정하는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면죄표를 주어 사용했다.

스콜라신학자 중에서도 유명한 Alexander of Hales, Albertus Magnus, Thomas Aquinas등이 면죄표제도를 지지하여 로마교회의 공적설의 원리에 정교한 이론을 제시하게 되었다. 사도들과 성자들의 축적된 공적에서 얼마쯤을 옮겨다가 면죄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나 또는 그가 주기를 원하는 집안의 조상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로마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1343년 Pope Clement VI는 이 원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그후부터는 면죄표가 널리 보급되었고 돈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 본래 면죄표의 의도는 회개를 전제로 한 것으로 경제적인 요소는 차후적인 것이었으나 재정이 궁핍해진 로마교회는 판매를 강행하여 궁핍한 재정의 충당을 하려 했음으로 면죄부는 어마어마하게 남용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부패와 타락의 면죄표로 전락되어 16세기의 종교개혁을 불러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III. 로마교황청의 부패상과 민족국가의 출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야의 교황청의 무대를 장식한 Pope는 Alexander VI (1492-1503)와 Julius II (1503-1531)였다. 이들은 로마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가속화시켰던 인물이다. 개혁 초기를 담당했던 Pope Leo IV (1513-1521) 역시 이들 못지않게 부정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신앙과 양심을 떠난 인물들로 중요한 이 시기의 로마교회를 상당히 불행한 세대로 만들었던 것이다. Alexander VI의 언행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군왕은 맹수의 마음을 품고 행하면서도 인도적으로 보이도록 위장해야 된다. 참으로 자비심이 깊은 것은 군주에게는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다만 외모로만 자비심과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인기술이 있어야 군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Machiavelli는 Alexander VI에 대해 갈파하여 평하기를 그는 어떠한 맹세나 약속도 쉽게 파기하여 그의 술책에 있어서는 전대미문이었으며 그를 필적할만한 자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Alexander는 거짓을 일삼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던 권모술수가였다. 이같은 점에서 볼때 Borgia, Cesare (1475-1507)부자는 유능한 사기꾼이었다. 추기경이었던 Cesare Borgia는 Pope Alexander VI의 비밀 첩의 아들로 끝없는 야망을 위해 권모술수에 능한 전략가였다. 그의 이러한 중횡무진한 술책들을 묘파한 작품으로 명화 “Borgia가의 독약” 또는 Cesare Borgia의 “우아한 냉혹” 등이 널리 알려져 있어 그때의 단면을 보여준다. Julius 2세는 군인 출신인 Pope이며 Machiavellism을 신봉하는 천재적인 정치가로 유명하며 그는 종교적인 정신을 도외시하고 권모술수 제일주의로 모든 일들을 정치적으로 처리를 하는 교황이었으니 교황청은 신앙을 외면하는 권모술수의 타락장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

Leo 10세는 세상역사가 증거하는대로 당대의 유력한 고리대금업자 Medici가의 차남으로 본명은 Giovannide Medici로서 Pope가 된 인물이다. 그는 어린나이 7세로 교황청의 교직적에 입적되었고 가문의 위력과 주시로 13세의 소년으로 추기경이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세인들을 웃기는 추기경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약관 38세로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Medici가의 재력과 권모술수의 덕택이라고 세상은 평했었다. 그는 불란서군대를 이태리로부터 축출에 성공한 때도 있었으며 또한 지침을 당한 때에도 전쟁을 잘 수행한 정치가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에게는 종교가로서의 신앙이 없었다고 지적된다. 혹자는 그가 세속적인 사람이었으나 불신자는 아니었다고 변호하는 자도 있으나 루터와 상대하여 싸울때는 양심의 고통도

약간 있었다고 본다.

이것은 마치 10세기 John VI(931-935)시대때의 소위 창부교황정치시대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다. 세상속권을 지배하려는 욕망때문에 막대한 전비 지출로 재정적인 곤란이 심하였었다. Pope John 22세(1316-1334)때 로마교황청이 지출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전쟁비와 막료의 봉급이 75%, 주방과 주대 2.55%, 복장비 3.35%, 기타 19%등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지출면으로 볼때 로마교황청은 단순한 교회기관이 아니라 로마교황청 국가의 형태와 기능을 가진 한 정부로 보아야 했다. 로마교황청 국가의 군주로서 전비조달과 막료들의 봉급 지불을 위해서 속죄표를 강매해서라도 교황청 수입을 도모해야만 했다고 보인다. 교황 Alexsander 6세가 그의 밑집에게서 출생한 아들 Cesare Borgia를 내세웠던 전쟁은 로마교황영토의 확장전쟁이었다. Julius 2세나 Leo 10세도 같은 목적으로 정치적인 권익증강에 최선을 다하는 수단을 부렸으니 교황청은 부패와 타락을 거듭할 수 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로마교회는 큰돈이 계속 필요한 데 비하여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들어오던 수입금은 국가주의의 출현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급할 경우 고리대금업자들에게서 차용한 돈때문에 이자까지 지출해야 되었으니 재정의 악순환은 대단하여 불가피적으로 따라오는 추태 부패, 타락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형편이었다.

IV. 국가주의의 재정채과 로마교황청의 국제주의와의 충돌

종교개혁운동은 개혁하는 운동만 했어야 할 터인데 천주교회로부터 분리하는 독립운동까지 되어졌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만 하다. 물론 로마교황청이 부패 타락을 반성하지 않고 개혁운동을 탄압하는데만 주력하므로 부득이 분리 독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카톨릭 교회의 본부인

로마교황청의 부패 타락이 극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천주교회에서 분리 독립하는 종교개혁의 길만이 있었는가? 개혁노선의 몇가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종교개혁 운동에 측면적인 도움이 개혁운동의 방향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그 시대적인 원인은 국가주의였다고 생각된다.

로마교회의 Internationalism과 당시 국가들이 눈뜨기 시작했던 Nationalism의 충돌이 역사적인 고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종교개혁운동과 국가정치와의 생산적인 긴장과 충돌하는 관계가 생겼다.

서구의 여러나라들이 자국익에 눈뜨는 국가주의의 발흥으로 로마 천주교회의 국제주의와의 충돌은 불가피적이었다. 서구 여러나라들은 로마 교황청이 지배하는 현존 사회질서에 대한 불평불만이 편만해지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적극적인 자국익을 강조하게 되므로 종교개혁운동은 정치적인 국가주의와 밀착하게 되었다. Colombia University의 근세사 교수였던 Hayes, C. J. Huntley(1882-1964)의 저서 “근세구주의 정치 사회사II, 1916”에서 지적하기를 종교개혁운동의 중요한 기반에 당시의 국가주의와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그는 Protestantism을 Nationalism의 종교적인 측면 운동으로 평가하여 역사학계를 놀라게 했었다.

당시 서구제국들은 자연경제체제하에서 자급자족하는 경제권이 정치적인 단위로 형성되면서 교환경제로 발달하여 민족 중심의 국민경제권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국가주의로 정비통합되는 구심력으로는 주권들이 절대권력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국가주의의 형성은 Stubbs, William 1825-1901이 지적한대로 “지리적인 명칭”에 불과하던 국가에서는 왕국이라는 이름뿐이었던 왕위가 절대권좌의 실체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국민 국가주위는 절대왕권이 강력한 힘이 되어 국민의 모든 힘은 국왕중심으로 집결되어 국왕은 강대한 부와 절대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 점차적으로 로마교황청이 국경을 무시하고 모든 국가들을 마음대로 지배하던 Internationalism의 중세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시대가 오고 있었다.

물론 국가주의는 형성되는 중이었지만 교황청의 국제주의적인 지배와 충돌하게 되었다. 광대한 영토권을 가졌던 수도원장, 교구장, 임명과 서임권 때문에 중세기동안에 종종 충돌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국가주의 왕권때문에 국외군왕주격인 로마교회의 Pope가 옛날대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려 하므로 여러 국왕과 충돌하게 되었다.

또한 사법권을 일원화하려는 국가주의와 교회재판권과 영주재판권의 충돌도 매우 심각하였다. 각국내에서 치외법권을 행사하고 있던 로마교황청은 기독교를 그대로 확보행사하려 하는데 반하여, 국가주의는 자국내의 정치와 경제를 통일 장악하려 하므로 충돌이 발생되었다. 독일 국토의 3분의1이 로마교회 영토이었으며, 불란서 국토의 5분의1이 교회영토로 되어 국가재정에도 매우 큰 손실이였다. 교직영토는 로마교황청으로 상납만 하고 국가에는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서구주 각국들의 국가주의 대두로 전구주의 보편적인 지배를 계속하려는 로마 교황청과의 정치적이요 경제적인 관계는 불상용적인 대립으로 심각하게 되었다. 예를들면 스페인국내에서도 Fernando가와 Isabel I 세가 1469년 결혼으로 스페인국가통일이 성립됨으로써 1479년부터는 절대왕권 정치로 국력을 강화시키고 1482년에는 Pope Sixtus사세(1471-1484)와 담판하여 모든 교하성직자는 스페인으로 서임하되 국왕의 추천한 인물로만 한다는 "약속하는 협약"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민족 국가주의적인 왕권의 승리였다. 스페인국은 그후부터 로마교황청으로의 상납금을 격감시키는 정책을 펴 나아갔다.

V. 영국 국가주의와 교황청과의 발생된 문제점들

국가주의가 발생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하며 국력을 크게 증강시킨 나라는 영국과 불란서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영국은 William I 세(1066-87)국왕이 Pope Gregorius VII세(1073-85)의 지

배를 거부하고 국권을 강하게 한 중세국가로써 특이한 점이 일찍부터 있었다. 지리적으로 대륙에서 떨어진 섬나라이었으므로 교황권이 행사되기 어려운 유리한 점이 있었다. 영국의 교회는 천주교회이면서도 Ecclesia Anglicana라는 영국교회가 독자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지배권을 강하게 침투시키는 로마교황이지만 영국교회는 마음대로 요리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교황청은 영국교회의 독립을 인정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 왕권이 약해질 때마다 지배의 손길을 종종 행사할 수 있었다. 이같은 기회는 무능무력했던 영국 John왕(1199-1216)시대를 한때 마음대로 지배하였다. 그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Canterbury의 대주교 임명권으로 존왕과 교황과의 싸움에서 로마의 Pope Innocentius 3세(1198-1216)가 존왕을 파문선언하고 불란서왕 Philipp II세 Auguste(1180-1223)의 십자군을 출정시킨다고 위협하니 존왕은 황급히 영국 국토의 전부를 로마교황에게 받치고 존왕은 로마교황의 대신이 된다고 서약까지 하고 용서받는 추태를 역사에 남기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뿐이었고 그후부터는 독자적인 영국교회로 회복되었다. Edward 3세(1327-77)는 존왕의 굴욕이래 영국이 매년 상납해오던 조공을 거부할뿐 아니라 영국에서 교황청으로 보내던 교회영토세를 계속 상납하는 것은 이적행위이요 반국가적인 죄악이라고 금령을 포고하여 국리를 강화시키고 그 후에도 속죄포 판매사절단의 입국을 금하고 로마교황청 수입원을 완전히 봉쇄시키는 영국이 되었다. 영국 의회는 1351년 교황의 서임권 무효령을 가결했고 1365년에는 로마 교황에게 상고하는 행위는 국가반역죄로 가결시켰으며 이 반역죄는 사형으로 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입법조치로 영국은 로마교황청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법적인 독립으로 로마교황의 지배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배제되고 로마교황청으로 상납되는 출혈을 막음으로써 영국이 부강하게 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영국에서의 반로마교적인 종교운동으로는 선봉장격인 국가이었다.

VI. 불란서의 국가정책과 로마교황청이 당한 고통

불왕 Philippe 4세(1285-1314)는 1296년부터 불란서국내에 소재하는 교회 영토와 수도원 영토에 대하여 국세를 내도록 법제화시키고 로마교황청으로 상납을 엄금시켰다. 이에 로마교황은 크게 노하여 대응책을 세우고서 불란서국내의 고위성직자들을 로마교황청으로 소집령을 내렸다. 불왕은 더욱 강경책으로 맞서 국경을 전면적으로 봉쇄시켜 한사람도 로마로 가지 못하게 했으므로 불왕의 승리로 끝났다. 그후에도 불란서 국가 정책은 더욱 강화 되므로써 로마교황청은 경제적인 곤경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불왕은 1302년 노틀담 삼부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Pope Bonifatius 8세(1294-1303)를 규탄하는 선언을 채택하여 불란서 국내 교회 간섭을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로마교황은 저 유명한 회칙 Unam Sanctam을 1302년 11월 18일 공포했다. 그 회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로마천주교회에만 구원함이 있으며 죄사하는 권세도 있다. Pope의 권위는 절대최고권이다. 두 개의 검이 Pope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는 세속권을 다스리는 검이요 또 하나는 영적권을 다스리는 검이다. 최고권자 Pope에게 저항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이니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선언하여 국왕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당시 대두되는 국가주의와 주권을 강화시키지 못하는 Pope권력이었다. 그후 불왕 Philippe 4세는 로마교황의 회칙을 무시할 뿐 만 아니라 1303년 초에 루블의 회를 소집하고 로마교황의 폐위를 결의하였다. 왕은 그의 호위병을 Anagni까지 밀파하여 Pope Bonifatius를 급습하여 체포하고 굴욕을 심하게 주었다. Pope Bonifatius는 Unam Sanctam 회칙을 철회하고 퇴위하라고 강요당하는 곤욕을 당하던 중에 주민들의 의거의 도움으로 구출되었으나 굴욕의 공포 때문인지 정신착란증으로 한달만인 1303년 9월 분사한 교황이 되었다.

Anagni의 굴욕사건에서 승리하므로 왕권이 새힘을 얻어 봉건분장을 극복하고 국민적 지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결되면서 국왕의 힘은 로마교황을

압도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줌으로써 국가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다.

불왕 Philippe 4세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교황청을 불란서국의 남부에 위치한 고도시인 Avignon으로 끌어들이 장본인이었다. 또한 그는 1309년부터 1377년까지 교황 Clements 5세부터 7대의 교황들을 불란서왕권 지배하에 예속시키는 역사를 만든 사람이다. 그의 치세때인 1304년 발포된 법령은 재산의 국외유출금지령과 외국인의 불국내거주 금지령으로 외국인 고위성직자임명의 길을 막았던 것이다. 그후 1377년까지는 불왕이 교황청을 마음대로 지배하였던 것이다.

로마시의 동남쪽에 있는 소도시인데 교황을 납치, 굴욕을 주니까 Anagni 시민들이 쫓겨하여 Bonifatius 8세는 구출되었다. 1438년 Charles 왕의 국사 소척령으로 불란서 교회는 로마교황에게서 독립하여 오다가 1516년 불왕 Francois I (1515-1547)와 로마교황 Leo 10세가 맺은 보로니아 협정체결로 불란서교회 성직자 임명권이 불왕에게 법적으로 귀속되는 합의사항이 되었다. 불란서 교회가 로마교황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완전 독립을 하게 되었으므로 하나의 개혁으로 생각하여 국내 종교개혁의 불길을 쉽게 막고 옛날대로 안주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다. 불란서왕이 임명권을 장악한 600명의 주교, 수도원장의 지지와 영국과 독일과 패권싸움에 로마교황의 협조가 필요한 정치정세였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동기에서 불란서왕은 개신교 탄압령을 내려 로마교황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었다.

불란서교회는 신앙과 교리는 로마천주교회에 속하면서 정치와 경제는 로마교황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정책이었다. 왕권의 강화로 Louis 14세(1643-1715)치하에서는 불란서교회는 4개조 선언이 있었다.

- ① 국왕의 세속권력은 로마교황으로부터 독립한다.
- ② 교회공회회의는 교황권보다 우월하다.
- ③ 불란서교회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 ④ 교회대회는 승인없이 교황의 재가라도 무효로 한다.

36. 그리스도 문화(II)

불란서의 5분의1의 영토 지배로부터 들어오던 막대한 재원이 끊어진 로마교황청은 재정곤란의 타격이 심각하게 되었다. 불란서 교회는 독립하였다는 자부심과 4개조선언으로 로마교황의 절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대회 밑으로 격하시킨 것으로 교회개혁을 대치시키는 정치적인 행사로 끝나고 개혁운동을 탄압하여 교황의 호감과 협조로 영국과 독일과의 패권싸움에 이용하는 불란서가 되었던 것이다. 불란서의 개혁운동은 강권적인 압박으로 출혈이 극심하였다. 유그노파의 개혁운동의 눈물겨운 역사를 남기고 대부분 외국으로 떠났으므로 불란서는 독일의 30년 전쟁 못지 않은 국가적인 손실을 입는 나라가 되었다.

VII. 로마교황청의 유일한 재정적인 짓줄이 된 독일과 그의 고통

로마천주교회는 중세기 재정형편으로 풍부하였다. 서구 여러나라들로부터 거금이 상납되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상납해 오던 국가들 중에서 불란서가 1296년부터 교회영토에 세금을 국가에 바치고 로마교황청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하였고, 영국은 1327년부터 로마교황청으로 상납하던 막대한 공납금물을 중단시키는 금령을 발표하므로 로마교황청에 큰 타격을 주었다. 스페인도 1482년부터 강력한 왕정으로 로마교황청에 상납하던 재원을 끊고 국가재정을 통제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국외로 흘러나가는 재원을 단속하는 법령이 제정되고, 엄격히 실시되므로 로마교황청에 상납하던 일이 일체 금지되었다. 불란서, 영국, 스페인 등 유력한 나라들이 국가주의로 국리민복하는 정책을 세우고 로마천주교회에 상납을 엄금했는데 오직 독일만은 상납을 금지시키려고 시도해 보다가 단결하지 못하므로 실패하게 되었다. 독일은 계속 국가적인 재정이 극심하였다. 유그노파의 개혁운동의 눈물겨운 역사를 남기고 대부분 외국으로 떠났으므로 불란서는 독일의 30년 전쟁 못지 않은 국가적인 손실을 입은 나라가 되었다.

6. 로마교황청의 유일한 재정적인 짓줄이 된 독일과 그의 고통

로마천주교회의 중세기 재정형편은 풍부하였다. 서구 여러나라들로부터 거금이 상납되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상납해 오던 국가들 중에서 불란서가 1296년부터 교회영토에 세금을 국가에 바치고 로마교황청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하였고, 영국은 1327년부터 로마교황청으로 상납하던 막대한 공납금물을 중단시키는 금령을 발표하므로 로마교황청에 큰 타격을 주었다. 스페인도 1482년부터 강력한 왕정으로 로마교황청에 상납하던 재원을 끊고 국가재정을 통제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국외로 흘러나가는 재원을 단속하는 법령이 제정되고 엄격히 실시하므로 로마교황청에 상납하던 일이 일체 금지되었다. 불란서, 영국, 스페인 등 유력한 나라들이 국가주의로 국리민복하는 정책을 세우고 로마천주교회에 상납을 엄금했는데 오직 독일만은 상납을 금지시키려고 시도해 보다가 단결하지 못하므로 실패하게 되었다. 독일은 계속 국가적인 재정의 극심한 출혈을 당하게 되었다. 로마교황청의 재정을 보충시키는 짓줄노릇을 하는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고통이 있었다. 이같은 국가적인 헛점이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역사가들도 있다.

중세기 말기의 독일의 경제권은 남과 북으로 분열대립되는 불행이 있었다. 북부 독일은 Hansa동맹을 중심으로 한때 번영하였고 서남부는 무역을 기초로 하는 장원제도의 금납화로 농민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경제권이 일원화가 되지 못하는 불리한 조건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다 쇠퇴일로로 걸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대륙에서 금과 은이 대량으로 싸게 수입되므로 독일광산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전독일이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화폐경제의 발달로 영토주와 농민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거대한 상업자본의 독점경제로 사회전반의 근대화 발전에서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형편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던 독일은 정치체

제에 있어서도 영국이나 불란서국과 다른 처지에 있었다. 중앙집권적인 국민국가의 형성에 순조롭지 못했다. 신성로마제국이라는 간판 밑에 지방영주와 교회영주들의 토지할거 대립이 계속되던 중 각기 영내에서는 정치 경제 사법적으로 영주들의 완전한 지배권을 인정한 법률인 Golden Bull이 1356년의 칙령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다.

독일은 제국의회라는 상징적인 기관으로 통일국가처럼 보였다. 강력한 중앙집권정부를 세워보려고 Nicolaus Cusanus의 국가 개조계획이 1433년 황제 Sigismund(1411-37)의 국가개혁안이 결실하지 못하는 헛점이 있었다. 계속하여 Maximilian 1세(1493-1519)때 1495년 Worms Diet에서 제국전체의 징세법과 제국법원설치등을 결의했었으나 모두 실천하지 못하는 약체국가로

로마교황청에 거의상납하는 출혈이 계속되었으며 속죄표 판매의 유일한 시장으로 착취당하는 허술한 국가로 허덕이고 있었다. 다음 황제로 선출된 Karl 5세(1519-1556)로 혈통적으로 보면 부계는 Maximilian계이며 모계는 스페인계의 Fernando Isabel의 계통이므로 독일인들의 동정으로 1519년 황제 선출에서 불왕 Francois를 누르고 신성로마황제로 선출되었었다.

독일은 국민적 국가통일의 결속이 못 됨으로 로마교황청의 재정적인 착취가 집중적으로 계속되는 나라가 되었다. 오직 독일만이 로마교황청의 근대화 체제로 되는데 배전의 거금액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짓줄노릇을 하게 되었다. 당시 Maximilian 1세때인 1518-19에는 독일황실의 년수보다 10배나 되는 금품이 로마교황청으로 상납되었으니 놀라운 일이다.

독일의 민족국가형성이 영국, 불란서에 뒤지는 상태였으므로 국가 민족적인 출혈이 막심했던 반면에 고난속에서 민족의식이 짝트게 되는 결과가

금인칙서 또는 황금문서라는 Golden Bull는 Charlemagne대제이래 칙서의 명칭이다. 황금색의 인표이며 그중 유명한 것은 1356년 Karl 4세가 발포한 칙령이다.

나타나게 되었다. 로마교황청의 착취는 독일민족 감정을 자극하여 로마교황청에 대한 반감과 증오심을 불타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로마교황은 독일민족의 불구대천적 원수로 여기는 민족감정은 종교개혁의 정신적인 옥토로 되기에 충분한 마음 받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로마교황권에 가장 극심하게 오래동안 시달리고 착취 당한 민족을 독일이라고 지적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VIII. 당시 로마천주교회의 경제적인 윤리관

중세기 말경에는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며 그 활동은 근대국가형성발전에 저력이 되었다. 그런데 로마교황청은 그것을 무시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로마천주교회의 당시 사회윤리는 꿀벌의 비유를 적용하여 사회계급신분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고정된 계층신분에 상응하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빈욕이라고 죄악시했다. 동봉이 왕봉이나 웅봉되려는 것과 같아서 안정된 사회제도를 파괴 혼란케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의 수요충족 시키는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세 고정된 사회를 지지하는 로마교황청의 윤리관은 상업 활동에 대하여 맹렬하게 비난하고 경계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로마천주교회는 상인들을 지칭하기를 '여우가 썩은 고기를 탐하는 격'이라고 했으며, 또 '상업은 속이고 빼앗고 탐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여 '상업이득은 앓아서 물건을 우수에서 좌수로 이동시켜서 얻어지는 부당한 이득'이라고 과격하게 비난하였다. 이것은 상업으로 상품의 물자활용제조와 운반의 노력 보관의 수고 등의 능률적 유통교환기능을 무시하는 논리였다. 로마주왕교회의 태도는 봉쇄적인 자연 경제만을 알고 중세적인 신분고정사회를 유지하려는 때문에, 영리행위를 죄악시하고 신분상용의 활동만을 강요하는 한국의 양반과 그 후손만이 특권을 누리던 신분고정관과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로마천주교회의 당시 윤리관은 교황

청의 상납금물을 증액시키려고 비상한 수단과 방법으로 속죄표까지 판매를 강행하면서 상업에 죄악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윤리였다. 뿐만 아니라 금리도 금하였고 다만 돈은 교환의 수단물로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돈의 바른 사용은 소비하는 것이지, 돈이 돈을 생산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성경도리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단정하였다. 이자는 불로소득이며 하나님께 속하는 시간을 방매하는 행위라는 Thomas Aquina(122-74)의 주장은 중세기의 자급자족과 자연경제 뿐인 세상에서의 말이지 근대화의 16세기에는 맞지않는 윤리관이었다. 그 당시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은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안토니오와 대금업자 사일록과의 관계에서 보여진 관계를 예들어서 Shakespeare는 로마천주교회의 윤리는 당시 착오적인 것이라고 강하게 지탄했다. 로마천주교회의 상업무시관이나 이자소득의 죄악관은 크게 잘못된 정책이었다. 오히려 장려하면서 로마교황청의 재정확충을 도모해야 이치에 맞는 재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당시 교인들의 상업도 금지시키고 자본활용도 동결시키면서 상납확장책만 쓰는 모순을 범하였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신교의 주역적인 Luthea의 직업사명감을 보면, 강조한 모든 직업의 신앙적인 수행을 역설하였다. Calvin도 근로관을 신성시하여 Geneva 시민들의 자본금사장을 교정시켜서 무역업자들에게 주어 이익을 분배토록 지도하였다. 이렇게 교인들을 잘사는 길로 인도한 것을 후세사람들은 Calvin을 자본주의발달의 큰 유공자로 칭찬하고 있다.

로마교황청은 정책착오에서 재정곤란을 자초도 하였고, 영국, 불란서, 스페인 제국들의 국가주의로 상납금의 길이 막힘으로 증첩되는 재정곤란을 속죄표 판매로 충당해 보려고 강행하다가 종교개혁이란 역사적인 사건을 폭발시킨 주도자가 되었던 것이다. 로마교회의 속죄표 판매와 같은 비성경적인 교리강행과 종교개혁을 초래시킨 정치적인 시행착오를 거울로 삼아

항상 자성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빛나는 오늘과 내일의 역사발전이 되기를 축원한다.

참고문헌

- ①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I.II., LATOURETTE, 1975.
- ②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1971, Walker.
- ③ WESTERN SOCIETY And The Church in The Middle Ages, 1970, by R.W. Southern.
- ④ The Age of the Reformation Bainton, 1956.
- ⑤ An Historian's Approach to Religion, 1955.
- ⑥ 근세서구정치사학회, 1916. Hayes C.J.Huntley.
- ⑦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Philip Schaff, Vol. VI. VII., 1957.